



인간새 되어… 아름다운 비행

호주의 마누엘 페트너가 16일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 개인
리지 힐 경기에 앞서 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꽃 방망이… 'V11' 걱정마!



KIA 야수조 스프링캠프 출국… 이용규 합류

조 감독, 돌아온 김주형 '한방 해결사' 중용

류했다.

KIA의 유일한 미계약자였던 이용규는 15일 4000만원 인상된 2억원에 연봉 도장을 찍었다. 연봉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이용규는 정상적으로 스프링캠프에 참가해 2011시즌을 준비하게 됐다.

조범현 감독은 을 시즌 마운드 전력에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지만 야수진 구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한방'과 '키스토 콤비'가 조 감독의 2011시즌 구상을 복잡하게 하는 변수다.

지난해 김상현의 부상과 나지완의 부진으로 빈터에 허덕인 KIA는 한방 강화를 위해 타자 응병을 고려했다. 하지만 투수 한기주와 김진우의 합류 시점이 불투명하자 두 투수로 응병 엔트리를 채웠다.

내·외야의 불균형도 고민거리다. 신종길·김다원·최훈락·이영수 등이 외야의 새로운 피로 급부상했지만 풀타임 활약으로 내야를 수성한 안치홍과 전천후 내야수 박기남이 수술 후 재활중이다. 특히 안치홍의 공백은 공·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 감독의 고민이 더하다.

KIA 타이거즈 야수조가 16일 스프링캠프를 위해 일본 미야자키로 출국했다.

지난 14일 투·포수조가 끝에 캠프를 차린 데 이어 야수조도 스프링캠프 일정에 들입하면서 KIA의 '타격전쟁'이 시작됐다.

야수조에는 주장 최희섭을 필두로 신인 윤정우 등 15명이 포진해 있다. 연봉협상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던 외야수 이용규도 비행기에 올랐다. 지난해 두산에서 방출됐던 유효수 박종섭도 마무리 캠프에 이어 스프링캠프의 '히든카드'로 선수단에 합

돌아온 김주형과 4년차 김선빈은 조 감독의 2011시즌 구상을 좌우하는 핵심 포인트다.

조 감독은 "김주형이 기술적으로 많이 좋아졌다. 공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만큼 활용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김주형의 중용을 예고했다.

나지완과 차세대 오른손 거포로 주목을 받았던 만큼 두 선수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다면 KIA는 '한방' 고민을 덜 수 있다. 여기에 상무에서 많은 경기를 소화하면서 수비가 현충 안정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기대감은 더한다.

김선빈은 지난해 안치홍과 '꼬꼬마 키스톤'으로 활약하며 매서운 타격까지 동시에 선보였다. 시즌 초반 페트너 안치홍의 공백이 불가피한 만큼 '초반부터 강하게 나가겠다'는 조 감독의 구상에 김선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한편 미야자키 휴가시에 캠프를 꾸린 선수단은 내달 24일 가고시마로 이동해 연습 경기 등을 치른 뒤 오는 3월 4일 귀국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루키 김비오·강성훈, 자신감 얻었다

PGA 첫 무대 컷 탈락… 막혔던 3R 진출 실패



〈김비오〉

〈강성훈〉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의 한국 투기들이 데뷔전에서 컷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작년 12월 PGA 투어 월리파이스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출전권을 따낸 강성훈(24·신한금융그룹)과 김비오(21·넥슨)는 16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레이 골프장(파70·7068야드)에서 열린 소니오픈 2라운드에서 컷 기준(1언더파 139타)을 넘지 못했다.

강성훈은 3오버파 143타, 김비오는 2오버파 142타를 쳤다. 최경주(41·SK텔레콤)도 컨디션 난조로 4타를 잃어 함께 4오버파 144타를 적어내 3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

재미교포 나상욱(28·타이틀리스트)은 3타를 줄이며 중간합계 6언더파 134타를 쳐 공동 12위로 뛰어 오르며 코리안 브리더스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1라운드를 2오버파 72타로 마쳤던 강성훈

강성훈은 "아무래도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다. 하지만 코스 적응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많은 팬들이 응원을 해줘 신나는 대회였다"고 말했다.

김비오는 버디 4개를 잡았지만 보기도 3개를 적어내 1타를 줄이는데 그쳤다. 김비오는 "시즌 개막 전에 그립을 바꿨는데 적응이 덜 됐다. 이제 첫 대회이니 좌절할 필요가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재미교포 앤서니 김(26·나이키골프)은 5언더파 135타를 쳐 공동 20위, 위창수(39·테일러메이드)는 4언더파 136타로 공동 32위에 이름을 올렸다.

마루아파 시게키(일본)와 스튜어트 애플비(호주)가 중간합계 10언더파 130타의 맹타를 휘두르며 공동 선두에 올랐고 56명의 선수가 3라운드에 진출했다.

폭우로 경기 일정이 하루 순연되면서 대회조직위원회는 3, 4라운드에 나갈 선수들을 공동 43위까지로 줄였다.

/연합뉴스

왕기춘, 월드마스터스 연장 끝에 금

왕기춘(23·용인대)이 2011 국제유도연맹(IJF) 월드 마스터스 대회 남자 73kg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2010 광주우 애시안게임 은메달의 아쉬움을 펼쳐냈다.

세계랭킹 1위 왕기춘은 16일(한국시간) 새벽 아제르바이잔 바库에서 끝난 대회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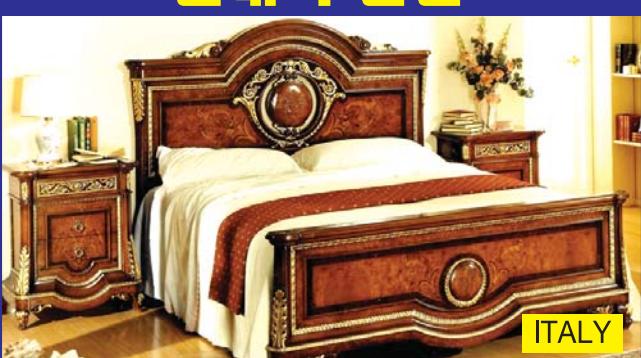
자 73kg급 결승에서 러시아의 만수르 이사예프와 연장전 끝에 업어치기 유효승으로 꺾고 우승했다. 지난해 마스터스 대회에서 2라운드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왕기춘은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하고 나서 2차전에서 만난 니클라스 멜로풀로(미국)를 빛당겨치

기 유효승으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데스 엘먼트(네덜란드)와 8강전에서 유효승으로 준결승에 오른 왕기춘이 아와노 애스히로를 빛당겨치기 한판으로 꺾고 결승에 나섰다. 지난해 9월 세계선수권대회 동메달 결정전에서 만나 승리했던 이사예프와 결승에서 재회한 왕기춘이 연장전으로 이어진 치열한 접전을 펼치다 종료 1분 15초를 남기고 업어치기 유효승을 따내 우승을 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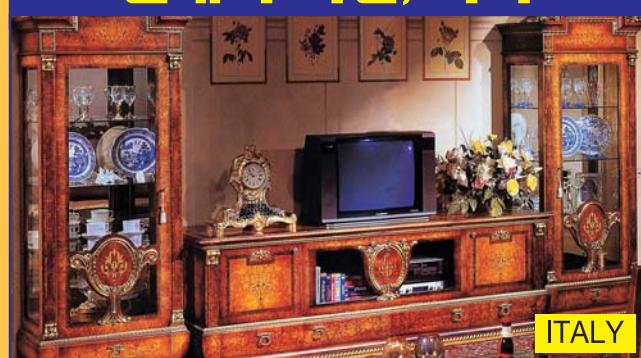
/연합뉴스

클래식 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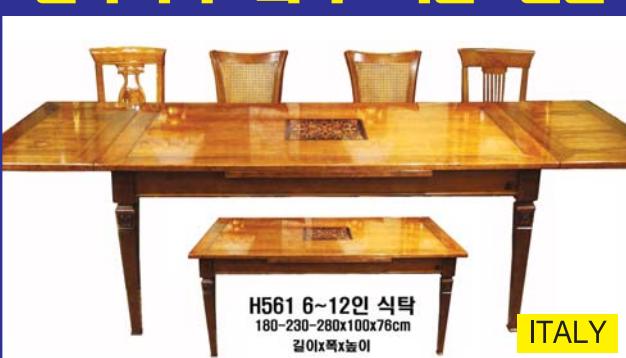
ITALY

클래식 거실, 식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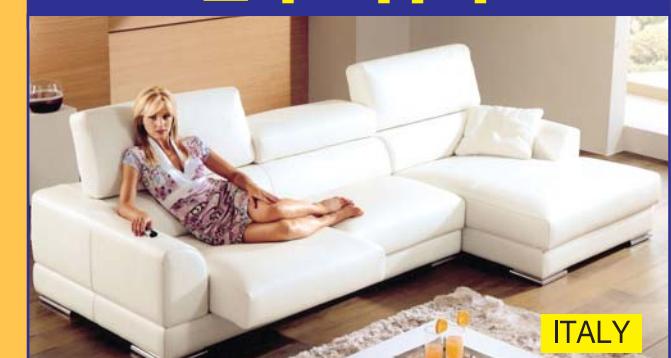
ITALY

앤틱식탁·좌탁·거실·침실

H561 6~12인 식탁
180~230~280x100x78cm
길이可根据

ITALY

소파·카우지



ITALY

SPACE 스페이스
이태리가구 직수입 도소매 SINCE 1990

상무점 오픈

모든식탁과 좌탁은 상판밑 좌우에 있는 50cm 보조날개 2개로 8인용 10인용으로 **쉽게 사용 가능** 합니다. (한국독점수입)
상무점 서구 화정동 307-1 화정동사거리 (구, 안기부 공항간 대로변 400평) ☎ 062-382-0022
문화전당점 동구 장동 58-15 문화전당 장동로타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 062-226-7567

(주) 흥스페이스는 1990년부터 인체에 무해한 100% 이태리 친환경 앤틱, 클래식 가구를 **직수입** 도, 소매하고 있으며 국산 가구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백화점 중심 영업에서 **직수입→직영점판매**를 하고 있습니다.